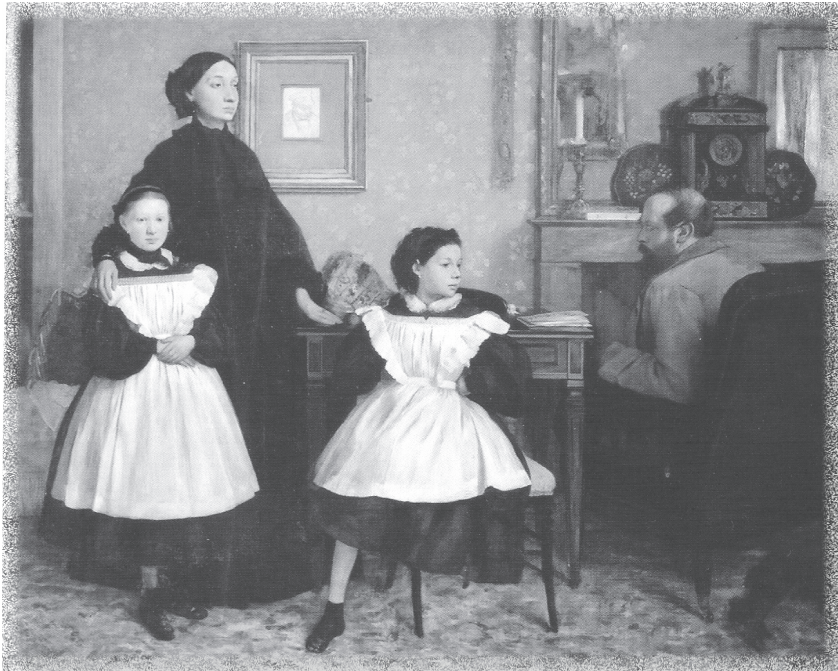




〈벨렐리 가족〉-1858~1867년, 캔버스에 유채, 200*250,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 여성을 시어했지만 여성의 본질에 매료된 드가 -

여인들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드가는 여인들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는 평생 지독하게 여인들을 싫어했다. 드가는 대부분의 인상파 화가들은 몇 명의 애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과 달리 금욕주의자 독신주의자였다. 그렇다고 드가가 동성애자는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혐오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드가는 어떤 여자의 유혹에도 자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애교가 많아 화가들이 모델로 기용했던 유명한 쉬잔 발라동조차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마네가 드가를 보고 ‘여자를 사랑할 수도,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 할 수도 없는 친구’라고 할 정도로 드가는 여성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성과 결혼에 대해 드가의 태도는 그의 성격 중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으로 드가는 자신과 같은 계급의 여성을 좋아했지만 성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무척 꺼렸다. 그가 여자에 관해서만 조심스럽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열세 살 때 겪었던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다.

드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순수한 사랑이 사라지는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죄의식과 비참함을 느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은 드가로 하여금 여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했다.

어머니가 죽자 드가는 아버지에게 집착했다. 드가는 은행을 물려받은 아버지 덕분에 컬렉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드가는 이탈리아 여행 중 로마의 미술관의 걸작들을 보고 모사하면서 화가로서의 꿈을 키운다. 이탈리아에서 드가는 고모부 젤나로 벨레리 남작의 초대를 받아 피렌체를 방문한다. 그곳에서 드가는 남작의 가족들을 담은 드로잉을 여러 점 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벨레리 가족〉다. 이 작품은 피렌체에서 드로잉을 한 후에 파리에 와서 완성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행복하지 않는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가족의 초상화에서 벗어나 여러 세대를 그렸다.

임신한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남작은 화면 오른쪽 귀퉁이 의자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 아내는 남편인 남작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딸들과 아내를 화면 한쪽에 배치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드가는 이들 부부의 갈등을 엿갈린 시선으로 또 가족 간의 거리를 강조함으로써 행복한 가족이 아님을 표현했다. 그가 이 작품을 처음에 제작할 당시에는 남작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

려고 했으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자 남작을 귀퉁이에 그려 넣었다.

드가는 이 작품을 당시 행복한 모습만 그렸던 가족의 초상화와 구별되어 지는데 그는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왼쪽 다리는 의자 뒤에 감추고 앉아 있는 조카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집안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그의 작품 특징이 그러나 있는 작품이다.

드가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와 화가로서 성공하고 싶어 대중과 살롱 취향에 부합하는 역사를 주제로 제작한다. 하지만 드가의 야심과 달리 역사화는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드가는 더 이상 역사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당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으면서 도시 생활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드가에게 파리 사람들의 생활은 작품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였다. 당시 파리 사람들은 오페라와 경마 등 새로운 것에 빠져 들었다.

부르주아 출신인 드가 역시 공연 마니아로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것을 즐겼다. 드가는 공연을 보고 난후 그들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발레에 매료되었다. 사람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좋아했던 드가에게 발레리나는 최고의 주제였다.

발레리나의 그림은 드가의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 절반 이상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과 조각이 차지하고 있다.

드가의 발레리나를 그린 작품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무대 위의 무용수〉다. 이 작품은 발레리나가 무대 중앙에서 혼자 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커튼 뒤에서 서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발레리나들은 간략하게 생략하면서 무대 중앙의 발레리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대 위의 무용수〉

1876-1877년, 모노타이프에 파스텔, 58*42,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중앙의 발레리나는 아라베스크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드가는 그녀의 팔 동작과 약간 기울어진 머리, 한쪽만 보이는 다리, 화려한 의상을 통해 발레리나의 동작을 잘 포착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무대의 앞부분이 생략되고 있는 데 드가가 높은 위치의 관람석에서 발레리나의 동작을 포착한 것이다. 또한 구도가 불안정한 것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발레리나의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무대 중앙의 발레리나 이외의 배경은 자유로운 터치로 처리하고 있으며 배경에 산으로 보이는 무대장치는 무대의 공간감을 확대시키

고 있다. 무대 뒤에 발만 보이고 있는 남자는 수석 발레리나의 후원자를 나타낸다. 수석 발레리나들은 부르주아 후원자들이 있었다.

팔다리가 들어난 옷을 입고 있는 발레리나들은 노동자 계층을 나타낸다. 발레리나들은 주로 노동자 계층에서 선발되었으며 일곱 살에서 여덟 살 때부터 오페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열 살이 되면 재능이 없는 아이들은 무용교육에서 버림을 받았다. 그렇기에 발레리나들은 정식교육을 받지 않아 글

을 읽거나 쓸 수 없었으며 일주일에 열세는 무용 수업을 받았다. 또한 선발된 무용수들은 성적에 따라 급료를 받기 때문에 매일 같이 연습장이나 무대에서 연습을 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수업준비를 도와주기도 했다. 고된 훈련에도 발레리나가 되는 것은 공장이나 노동에 종사하는 것보다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의 소녀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업이다.

하지만 드가는 발레리라의 화려한 모습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는 파리 오페라 극장 분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발레리나는 스케치했다. 그는 감정의 분출로 탈진한 무희의 얼굴, 고된 연습을 하는 무희들 등 무대 뒤의 발레리나의 모습을 더 선호했다.

드가는 여성에 대한 환상은 없었지만 외로움을 무척 싫어했다. 그는 그림은 조용한 화실보다 북적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겼으며 풍경화에 매달린 인상주의 화가들과 다르게 사실주의 작가들과 같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세탁부와 모자 상점에 관심이 많아 세탁부와 모자상점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제작한다.

일찍부터 여성의 누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드가는 카페나 식당에 가는 것처럼 공창에 자주 들러

매춘부들을 모델로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드가는 누드화를 제작하면서 모델들을 동물 다루듯이 다루었다. 모델들에게 충격적인 포즈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가 즐겨 그렸던 소재가 목욕하는 여성들의 누드나 화장실에 걸터앉아 있는 여자들이었다.

드가는 앵그르의 누드화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여성의 이상적인 미에서 벗어나 그만의 독창적인 누드화로 발전시킨다.

에드가 드가(1834~1917)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활동을 같이 했지만 인상주의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드가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자연스러운 빛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이고 사라지는 현장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드가는 당대 최고의 테생화가로 사라지는 것들은 화면 속으로 붙잡아 두기를 희망했다.

말년에 드가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다가올 죽음에 공포를 느껴 성격이 괴팍해지고 폐쇄적으로 바뀌어 조각에 심취한다. 그가 조각에 심취하게 된 동기는 잃어가는 시력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드가의 조각 작품은 이전에 드가가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소재들이다. 😊